WEEKLY IBK 경제브리프
(539호) 2018-01-16
IBK경제연구소

혁신의 아이콘, 테슬라의 위기

□ 테슬라의 모델3* 생산 일정이 재차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테슬라의 경영난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

* 주행거리 220마일에 기존 테슬라 차량 가격 대비 절반 수준인 3만 5천달러에 출시되어 시제품 공개와 동시에 사전예약 40만건을 달성하며 폭발적 관심을 받음

○ 모델3는 '17년 내 주당 5천대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발표되었으나, '18년 1분기로 연기되었고, 전문가들은 6월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

- 모델3는 '17년 3분기 1,50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260대를 생산했으며, 4분기에는 시장 예상치(2,900대)보다 저조한 1,550대 출하에 그침

테슬라 생산지연 히스토리



자료 : 언론기사 주 : 시제품소개 ⟶ 차량인도, ( ) 인도 예정일과의 평균 차이

□ 테슬라는 생산지연 뿐만 아니라 리콜 등 품질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고 신차개발·중국공장건설 등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봉착한 것으로 알려짐

○ 배터리 모듈 조립 공정의 병목이 생산지연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, 일각에서는 대량생산을 위한 자동조립라인을 구축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

○ 테슬라는 추가자금 조달을 위해 18억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으나, 무디스는 해당 회사채에 정크본드에 해당하는 B3 등급을 부여('17.8월)

- 테슬라가 투자자와 주주들에게 모델3 공급방침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내 놓지 못하면 자금조달 악화로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(월스트리트저널)

□ **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기업의 대명사이지만 설립 이후 단 한 번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적자폭이 확대**

○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에서 기술력과 대중성을 모두 갖춘 선두기업으로, 2015년, 2016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혁신기업 1위에 선정

○ 시가총액이 한 때('17.4.10) GM을 제치고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 1위로 등극하였으나, 기업가치 대비 비이성적 과열 현상이라는 비판이 제기

- 거듭된 영업이익 적자에도 미래가치와 성장성에 대해 낙관적 평가가 존재

※ 영업이익(백만달러) : △74('13) → △294('14) → △888('15) → △674('16) → △1,460('17e)

테슬라 주가 추이



자료 : S&P Capital IQ

GM vs. 테슬라

	GM	테슬라
매출액	1,660억달러	70억달러
영업이익	95억달러	−6.7억달러
영업이익률	5.7%	−9.5%
판매량	996만대	7.6만대
R&D 투자집중도	11.6%	4.9%
시가총액	625억달러	560억달러

주 : 2016년, 시가총액은 2017년 1월 9일 기준

□ **한편 중국 전기차 기업 니오(NIO)*가 테슬라 모델X의 반값에 SUV를 출시하는 등 다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신규 모델을 출시**

* 바이두·샤오미·텐센트 등 중국 IT기업들이 10억달러를 투자해 설립한 신생 전기차 기업

○ 모델X와 기술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며, 오히려 우위인 기능도 있음

- 1회 충전 시 주행거리 355km, 한시간 내 완전 충전, 최고출력 644마력, 인공지능탑재로 음성으로 차량 온도조절, 사진촬영, 음악감상, 자율주차 가능

□ **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량생산체계를 확보하고 품질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테슬라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우려**

○ 기존 글로벌 완성차 및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의 전기차 양산이 본격화되면 대량생산 노하우가 없는 테슬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

(작성자 : 산업연구팀 과장 박선후 tempest0810@ibk.co.kr / ☎02-729-6522)